

# 고위험 시설·기관 전수검사 확진자 '0'

### 광주시, 노인요양원·장애인 거주시설 등 260개소 2만9263명 검사

### 철저한 '능동감시체계' 운영기로 "모든 역량 집중 코로나19 종식"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고위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폐쇄병동), 장애인 거주시설 260곳의 입소자·입원환자 1만7911명과 종사자 1만1352명 등 2만9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존 확진자 발생 노

인요양원 이외의 시설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이번 전수검사 후속조치로 고위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능동감시체계'를 운영기로 했다.

2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인 △노인요양시설 및 회복지 △종사자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 이행은 물론 종사자는 퇴근 후에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고위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신규 입소자 외에 신규 종사자까지도 근무 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고령층의 코로나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종사자 고위험시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고령층 감염 확산을 차단토록 했다.

종사자, 입소자, 입원환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기록해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시키고,

입소자와 입원환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후 관찰 보건소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병원별 지정된 방역관리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안전한 초동대처를 위해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항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 노인요양원 확진자 발생 사례를 볼 때 종사자의 종교시설 집단 활동을 통해 노인요양원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당국과 원팀이 돼 협조해 주시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 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동구, 금연클리닉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광주 동구가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광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대응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연클리닉 비대면 운영방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연실천이 중단 위기에거나 신규 등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흡연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에게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물품으로 구성된 금연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금연을 실천·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다.

##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로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재산세 약 2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은 건축물 26,393건, 주택 111,903건으로 고지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 등)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남구, 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 등 특별 점검

광주 남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투명성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점검반을 투입해 시설 운영 분야를 비롯해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대책,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북구, 북스타트 부모교육 온라인 강좌 운영

광주 북구는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북스타트 부모교육'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곡도서관에서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강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엄마습관' ▲2강 '행복한 인재의 핵심은 책에 있다' ▲3강 '배려깊은 사랑' ▲4강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내지 않으려면' 등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다.

운암도서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강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엄마표 영어' ▲2강 '공감의 방법' ▲3강 '1-Message 방법 -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의 마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 방역 일선 광산구 공무원에 시민 격려 이어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광산구 공무원들을 위한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16일 베비에르 제과점 마곡천 대표가 아침 광산구청을 찾아 출근 중인 공무원들에게 우리밀빵 1,000여개를 나눠줬다.

같은 장소에서 수완동 주민자치회 이철승 회장은 장미꽃 1,000송이를 마련해 건넸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목련로타리클럽 기념식 회장과 회원들이 간식 70인분을 광산구 선별진료소와 상황실에 전달했다.

임형택 기자

## 남도장터,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 브랜드' 선정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지난해 동기비 매출 11배 ↑

전남도의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 상은 소비자의 직접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6일 서울 중구 말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도장터는 전남 22개 시군에

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출 기획상품을 만들어 정기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신규 입점과 신상품 발굴을 지원하고, 롯데온·쓱닷컴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31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남도장터 모바일 앱'으로 쇼핑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짜케짜케'남도맛쇼핑' 유튜브도 개설, 채팅하

며 쇼핑하는 라이브 커머스 열풍에 발맞춰 홍보와 판매도 진행 중이다.

남도장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907개 업체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8535개 상품이 입점해 있다. 온라인 회원 수도 지난해 2만 8000명 보다 9배가 늘어난 25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힘 입어 올 6월말 남도장터 매출액은 135억 원을 달성,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4000만 원 보다 11배나 늘어 농어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남도장터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남도장터 고객과 전남 농수축산물 생산 농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노사, 직원 성과급 일부 지역상품권 지급 합의

"코로나19 위기극복·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위기에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상품권 구입금액은 10억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임원들의 급여 30%와 부사장 급여의 10%를 반납하고 있으며, 1개월분인 1억8000만원을 선제적으로 반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노동조합도 지난 3월 노조창립 32주년 기념식을 대신해 노조활동비 절감분 3억원으로 전국 지역농

산물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탤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국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 국민지원 157-1000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엔 엄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대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의힘